

2009년도 대종회 정기이사회 개최 판용(判龍, 滋) 전 수석부회장을 제28대 대종회장으로 선출 자정(滋正) 전 이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 대전·충남종회 분리키로



대종회는 3월 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대종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자경(滋暻) 총재와 왕회(旺會) 회장, 판용(判龍, 滋) 수석부회장, 자선(滋璿) 상임부회장과 대종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대종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왕회 회장은 개회 선언에 이어 회장 인사를 통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임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종회의 宗事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이사회는 대종회의 제28대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저는 오늘로서 4년간의 대종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대종회를 잘 이끌어 가실 훌륭한 분을 대종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준회(俊會) 감사의 감사 보고가 있는 후 자선(滋璿) 상임부회장의 경과 보고와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에서는 왕회(旺會) 회장의 추천을 받은 판용(判龍) 전 수석

부회장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28대 대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판용(判龍) 회장은 취임 인사로 재임하는 동안 종사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 나가겠으며 총재님과 전임 회장님들을 잘 모시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용 회장이 자정(滋正) 전 이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하여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자정 수석부회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준회(俊會) 감사의 사의로 자백(滋珀) 이사의 추천을 받은 선회(先會) 전 이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고 장회(章會) 감사는 연임되었다. 이어 제28대 신임 이사 선출 건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하였다. 계속해서 대전·충남종회를 대전광역시종회와 충남도종회로 분리해달라는 달회(達會) 대전충남종회장과 완회(完會) 이사가 제안 설명을 하여 현재의 대전·충남종회를 대전광역시종회와 충남도종회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하며 고생하는 아버님(具長謨 종인)에게 자신의 콩팥을 이식하여 부자(父子) 모두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한 경남 마산시 양덕동의 구교진(具敎珍) 종인에게 효열패와 부상을 수여하였다.

4세조 면성부원군종회 정기 이사회 개최

면성부원군종회는 지난 3월 9일 대종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자경(滋暻) 명예회장과 왕회(旺會) 회장을 비롯하여 판용(判龍) 수석부회장, 자선(滋璿) 상임부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왕회 회장은 개회 선언에 이어 회장 인사를 통하여 재임하는 동안 면성부원군종회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금년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

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백(滋珀) 감사의 감사 보고가 있는 후 2008년도 결산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에서는 판용(判龍) 전 수석부회장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자백(滋珀) 감사의 사임으로 평서(平書) 종인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자민(滋民) 감사는 연임되었다.



대종회장
구판용(具判龍, 滋)

존경하는 국내외 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9일 능성구씨 대종회 정기이사회에서 제28대 대종회장으로 선출된 구판용(具判龍, 滋)입니다. 이렇게 대종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륜이 부족한 저로서 과연 그 직무를 감당해 낼 것인지 걱정이 앞서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종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하면서 성장하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오직 역대 회장님들과 총재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종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땀의 결정체라고 믿기에, 이처럼 훌륭하게 다져놓은 대종회가 종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도록 열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종인 여러분께서도 종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능성구문은 훈업(勳業)과 문장(文章)·충효(忠孝)·덕행(德行)이 국중(國中)의 망족(望族)으로 손꼽혀온, 도의문화(道義文化)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뿌리 깊은 전통명문으로, 조선조에 와서는 왕후(王后)와 영의정과 수많은文武百官을 배출하였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사법·행정부와 경제계에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문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선조님들이 베푸신 은덕(隱德)이 후손들에게 내려진 복록(福祿)임을 알고 앞으로도 능성구문의 후예답게 모범문중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지면을 빌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도록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인 여러분께서는 소종중을 비롯해서 파종회와 시도종회 등 제반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종사에 대한 관심과 종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종회의 귀중한 자산이 낭비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보전을 잘해서 후세에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종인 여러분!

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함과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며, 저에게도 큰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능성구씨 대종회가 새 힘을 받아 크게 번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도종회 총무이사협의회 개최



전국 시·도종회의 총무이사들로 구성된 총무이사협의회가 지난 2월 12일 광주·전남총회(회장 具連洙, 謨) 주최로 광주시에 소재한 구가네 굴비정식집에서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범서(範書, 경기도총회) 총무이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태서(泰書, 대전·충남총회)·행서(行書, 인천지구총회)·희회(禧會, 전북도총회장)·광회(光會, 서울시총회)·자희(滋喜, 부산시총회)·자완(滋完, 충북도총회)·교일(敎一, 경남총회)·기봉(基奉, 본, 광주·전남총회)·교원(敎原, 대중회) 총무이사 등 전원이 참석하였다. 교원(敎原)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서 범서(範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회원 전원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오늘도 종사를 위한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최한 광주·전남총회의 기봉(基奉, 本) 총무는 출장 중인 연수(連洙, 謨) 회장을 대신해서 멀리까지와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27일 봉행하는 춘계향사에 능주에서의 도시락분배를 시·도총무단이 서울시총회와 함께 지원을 하기로 결정 하였고, 하반기 모임은 경남총회(회장 具永本) 주관으로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동 정

대전고법원장 취임



구옥서(具旭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지난 2월 법원장 인사에서 대전고법원장으로 승진하여 2월 9일 대전 고법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구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엄격한 행동기준과 고도의 자기제재를 실천하는 한편 법정에서 소송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구술심리주의를 활성화해 사건의 종국률을 높여 달라”며 “진정한 마음과 성의를 갖고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구 고법원장은 법원 내 행정·조세 사건 전문가로 꼽히고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경북 의성 출신으로 좌정승파의 절도사공 후손이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구본민(具本敏) 검사가 지난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경기도 안산시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전남 광양 출신

인 구 변호사는 도원수파 호양공계 후손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그 후 부산지검 울산지청, 서울지검 동부지청, 법무부 특수법령과,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 검사, 서울 고검, 대구 고검 검사를 역임했고 수원지검 형사5·4부장,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인 구 변호사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 관련 수사전문가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권력비리형 사건인 신정아, 변양규씨 사건을 처리하는 등 수완을 발휘했다. 사무실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401호이다.

(031)405-6907

충남 보령 교육장 취임



구영회(具榮會) 종인 : 지난 2월 24일 충남 서천군 교육청 학무과장에서 보령 교육장에 취임했다. 영회 종인은 남장과 후손이다.

충남 청양 교육장 취임



구영모(具榮謨) 종인 : 지난 2월 24일 충남 공주 교육청 학무과장에서 청양 교육장에 취임했다.

북부검찰청으로 부임



구미옥(具美玉, 本) 종인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월 9일 서울 북부검찰청으로 부임하였다. 미옥 종인은 좌정승

파 절도사공 후손으로 합천군 포두문종자열 종인의 차녀이다.

혼 인

구본혁(具本赫 : 호양공 종손) 종인의 장녀 인선(仁善) 양이 신랑 차우식 군을 맞아 지난 2월 21일 화촉을 밝혔다.

구자남(具滋男 : 도원수파 직장공종종 총무) 종인의 차남 본진(本鎭) 군이 신부 정유나 양을 맞아 지난 3월 3일 화촉을 밝혔다.

부 음



구경서(具庚書) 대중회 및 서울시총회 고문 : 숙환으로 지난 2월 16일 별세.(향년 99세)

구평서(具平書) 서울시총회 감사의 모친(青松 沈氏) : 지난 2월 22일 숙환으로 별세.(향년 79세)

71세 구자억 종인, 최고령 경영학석사학위 취득



지난 2007년 69세의 나이로 한성디지털대학교를 수석 졸업해 화제를 모았던 구자억(具滋億) 종인(대중회 종보 제174호 3면 참조)이 이번엔 71세의 최고령 나이로 지난 2월 20일 한성대학교 디지털중소기업대학원을 차석으로 졸업,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또 한번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늦깎이 대학원생 자억 종인은 석사과정 평점평균 4.50 만점에 4.47점(백점 만점 점수로는 95.46)으로 수석과는 0.5점 차이에 불과했다. 그는 다시 박사과정에 도전하여 명신대학교(전남 순천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응시, 7명 정원에 15명이 면접에 응시하여 2:1의 경쟁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였다. 그가 칠순 가까운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은 젊은 시절의 다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정신 차릴 새 없이 일하면서도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잊은 적이 없었고, 내 인생 후반기에라도 못다 한 공부를 꼭 하겠다며 항상 주먹을 불끈 쥐었지.”라는 말씀

중에서도 강한 의지를 찾아 볼 수가 있었다. “자식뻔 되는 학생들과 학교생활을 하려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다”며 “MT(수련모임)에 가서도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울릴지 계속 눈치만 봤다”고 웃음을 지었다. 학업 중에 가장 애를 먹은 것은 과제 발표와 학술연구보고서였다면서 “나이가 많다 보니 컴퓨터 작업이 조금만 들어가도 시간이 무척 걸렸지만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다 보니 서서히 극복이 됐다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는 노인도 또 없을 것”이라며 웃었다. 또한 “노인들도 의욕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노인들도 새로운 정보 지식이 라면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여 젊은이들 못지않은 창의력을 발휘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꼭 취득하고 노인요양복지 시설을 세우고 싶다”며 “또한 그동안 배운 학문과 경험을 기초로 후진양성을 위하여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도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억 종인은 판안동파의 병사공계 후손으로 지금은 일본계 무역회사인 랜드마크를 경영하고 있다.

(자억 종인 연락처: 010-5516-3633)

알려드립니다

종보를 발송하고 나면 평균 50부 정도가 반송되어 옵니다. 종인 여러분께서는 자택이전 등으로 종보를 받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즉시 대중회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춘계향사 안내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는 봄 향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 능주 (시조 · 2세)

－ 고창 (3세)

－ 당진 (4세-7세)

양력 3월 27일 (음력 3월 1일) (金) 오전 11시부터

양력 3월 28일 (음력 3월 2일) (土) 오전 11시부터

양력 3월 29일 (음력 3월 3일) (日) 오전 11시부터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시조	벽상삼한 삼중대광 검교상장군공	존유 存裕	3월 27일 (음 3/1) 오전 11시	금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정동 마을)	대중회
2세	전주목사록참군 검 장서기 동평장사공	민첨 民瞻	3월 27일 (음 3/1) 정오 12시	"	"	"
행로	동광주인터체인지에서 광주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 우측으로 광주 · 화순간 우회도로를 타고 → 너릿재터널을 지나서 → 화순 · 보성간 도로를 타고 → 능주 림프를 지나 한천 림프로 내려가서 좌회전 → 금전저수지를 지나서 → 한천우체국에서 좌회전 → 과수원 삼거리에서 다시 좌회전 → 시조 단소 (정동 마을)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3세	안동면도감판관 증문하좌정승 면성부원군공	연珽	3월 28일 (음 3/2) 오전 11시	토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선동 마을)	대중회
행로	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선운산인터체인지로 나가서 좌회전 → 부안파출소를 지나서 → 오산저수지를 따라 좌회전 → 삼거리에서 우회전 → 고개 넘고 다리 건너 바로 좌회전 → 인천강을 따라가다가 우회전 → 3세 묘소 (선동 마을) ②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정읍인터체인지로 나가서 좌회전 → 정읍교를 건너서 → 주동저수지와 소성삼거리를 지나서 → 성내면사무소와 흥덕파출소를 지나서 →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인터체인지를 지나서 → 부안파출소로 진행 → 이하는 행로①을 참조					

선조	호 칭	휘 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4세	중대 광 면성부원군 판전의의사사공	예藝	3월 29일 (음 3/3) 오전 11시	일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 (신암산)	4세조면성 부원군중회
5세	중대 광 전리판서 면성군공	영검 榮儉	3월 29일 (음 3/3) 11시 30분	"	"	"
6세	소부 윤 증삼중대 광 문하좌정승 문정공	위禕	3월 29일 (음 3/3) 11시 30분	"	"	"
행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당진인터체인지로 나가서 좌회전 → 기지시리에 진입하여 당진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우측 송악면사무소에서 바로 우회전하여 다시 우회전 → 서해안고속도로 아래를 지나서 우회전 → 다시 서해안고속도로 아래를 지나서 좌회전 → 4세 묘소 (신암산)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7세	삼중대 광 문하좌정승 면성부원군 문절공	홍鴻	4월 26일 오전 11시	4월 끝 일요일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동 (창포산)	좌정승파 중 회
8세	가선대부 병조참판공	종지 宗之	"	"	"	"
행로	대구광역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8km, 대구광역시 북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5km, 무태행 버스를 타고 창포산입구에서 하차, 걸어서 500m (모선당)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8세	가선대부 이조참판 진북절도사공	종절 宗節	4월 5일 (한식) 오전 11시	일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송계당)	절도사공 중 종
9세	가선대부 지의성군사공	익령 益齡	"	"	"	"
행로	대구광역시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8km, 대구광역시 북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쪽으로 약 5km, 무태행 버스를 타고 서변동에서 하차, 걸어서 200m (송계당)					

선조	호 칭	휘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7세	관안동 대도호부사공	성량 成亮	3월 29일 (음 3/3) 정오 12시	일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교리 (신암산)	관안동파 중 회
행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당진인터체인지로 나가서 좌회전 → 기지시리에 진입하여 당진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우측 송악면사무소에서 바로 우회전하여 다시 우회전 → 서해안고속도로 아래를 지나서 우회전 → 다시 서해안고속도로 아래를 지나서 좌회전 → 7세 단소 (신암산)					

선조	호 칭	휘 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8세	통정대부 공주목사 증의정부영의정 능원부원군공	양揚	4월 5일 (한식절사) 오전 11시	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목사공중중
9세	대 광보국 송록대부 의정부영의정 충렬공	치관 致寬	"	"	"	충렬공중중
행로	곤지암인터체인지로 나가서 → 곤지암교를 건너서 → 곤지암사거리주유소에서 좌회전 → 실촌교를 건너서 → 연미교를 건너서 → 하열미 삼거리에서 좌회전 → 8세 묘소					

선조	호 칭	휘 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6세	상정의대부 공조전서공	의義	4월 5일 (음 3/10) 오전 11시	일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전서공중중
행로	함열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선조	호 칭	휘 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7세	가선대부 호조참판공	성미 成美	4월 5일 오전 11시	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참판파중회
행로						

선조	호 칭	휘 자	일 시	요일	장 소	주 관
7세	가선대부 지문천군사공	원립 爰立	4월 5일 (음 3/10) 11시 30분	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문천군사파 중 회
행로	함열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한국의 혼(魂) 루정(樓亭):

대구- 화수정(花樹亭)[4]

구본욱(具本旭)/대구향교 장의

◆ 화수정 제영(題詠) <2>

시암 이직현 선생은 합천 초계면 무릉리 사람으로 1917년에 대구지역을 방문하여 이 정자에 올랐는데 이때에는 금우와 근와는 이미 타계하고 난 후였다. 이때에는 금우의 아들 돈와(遯窩) 구태서(具泰書 · 1864~1943)와 근와의 아들 금암(琴庵) 구종서(具琮書 · 1864~1933), 죽하(竹下) 구성서(具晟書 · 1872~1943)가 그를 맞이하였다. 시암의 문집에도 돈와의 청(請)으로 지은 『금우집』 「발문」과 금암, 죽하에게 보낸 서간이 수록되어 있다. 시암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저명하였는데 그의 출처(出處)에 대한 의리정신은 파리장서의 서명자로 옥고를 치른 대구 상인동 월촌의 노암(魯菴) 우하교(禹夏敎 · 1873~1941)가 그에게 보낸 서간 <상 시암이장 직현(上是菴李丈直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암은 이 서간에서 “출처와 거취에 절도가 맞는 분은 시암 어른 한분일 뿐이니 …” 라고 말하고 있

다.(『노암문집』에 나옴)

시암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구씨 화수정운(具氏花樹亭韻)’은 다음과 같다.

“화수정에 새봄이 오니 제비가 찾아와서 하례하고/ 집집마다 봄소식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네. 가지마다 잎이 돋는 생생(生生)의 이치는/ 우주(36宮) 중 화수의 이름 속에 잘 드러나 있네.(花樹亭新燕賀成, 家家春信笑談清. 枝枝葉葉生生理, 六六宮中肇判名.)”

시암의 이 시는 화수를 우주생명의 발현으로 『주역』 「계사」에서 “우주의 위대한 작용은 생(天地大德曰 生)에 있다.”는 것과 “생하고 생하는 것을 역(生生之謂易)이라 한다.”는 의미를 토대로 우주생생(生生)의 이치(理)를 ‘화수묘용(花樹妙用)의 조화로운 상생(相生)의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 외에 구연규(具然圭, 구태서(具泰書), 구성서(具晟書)의 차운(次韻)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능주 주차장 확장공사성금 입금안내

하나은행 : 286-910004-14304(예금주 : 능성구씨대중회)

[성금내역]

(2009. 01. 16~2009. 03. 15)



具判龍 회장

1,000만원



具滋正 수석부회장

300만원

<능주 주차장확장공사 특찬>

관용 회장	10,000,000
자정 수석부회장	3,000,000
관안동과 병사공 신암중중	500,000
문천군사파중회	300,000
영서 고문	200,000
대만 영천시 화남면	200,000
관서 군포시 도마교동	100,000
자문 종로구 사직동	100,000
시우 옥천군 청산면	50,000
제현 화순군 한천면	30,000
제환 화순군 한천면	30,000

<중보기금>

연표 성동구 왕십리동	100,000
-------------	---------

<중보구독료>

대해 예천군 예천읍	10,000
자천 진주시 초전동	30,000
학서 부산시 부곡동	10,000
자석 대구시 두류동	30,000
정배 인천시 용현동	10,000
원회 수원시 인계동	10,000
관서 군포시 도마교동	30,000
승희 동대문구 회기동	30,000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대구시 도원동	10,000
기영 대구시 유천동	10,000
순회 대구시 범어동	10,000
운회 포항시 상도동	10,000
자만 포항시 환호동	10,000
철회 대구시 두류동	10,000
자옥 대구시 대명동	10,000
자은 시흥시 정왕동	50,000
자복 광진구 자양동	30,000
장환 송파구 방이동	10,000
본정 순창군 순창읍	30,000
자완 관악구 신림동	30,000
자흥 노원구 상계동	20,000
본호 은평구 불광동	20,000
자운 성남시 금곡동	30,000
자탁 부산시 광안동	30,000

<연회비>

정배 인천시 용현동	10,000
한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50,000
자관 마포구 상암동	20,000

<4세조면성부원군중회 이사부담금>

강화 정곡 소중중	50,000
-----------	--------

ISO 9001 / ISO 14001 획득기업

FPCB, 가접, 적층 분야의 선두주자 성우일렉컴!

그 끝없는 도전은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됩니다.

代表理事 具美淑

1. 고객 감동을 주는 품질실현

- 1) 고객의 시각에서 제품의 총체적 품질관리
- 2) 신속한 시정조치와 불량요소 제거로 고객불만 해결
- 3) 철저한 사후관리의 시행으로 최고의 서비스 반영

2. 고객 요구사항 100% 충족

- 1) 제품공정 안정화를 위한 품질시스템 개선/유지
- 2) ISO 9001요건을 준수하는 품질시스템 구축 및 준수
- 3) 기술력 확보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

3. 제품 경쟁력 확보

- 1) 아이디어 창출 및 기술개발을 통한 최고의 품질구축
- 2) 고품질 고객만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본 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9-10

TEL : 031-494-7689 / FAX : 031-431-6057

HOT PRESS 사업장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1055번지 반월공단 603BL 4LOT

TEL : 031-362-2783 / FAX : 031-494-0593

성우일렉컴
Sung Woo Elecom

성우일렉컴